

<조선백자> 청소년 활동지 교사용 해설

♣ 박물관 소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대학의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35년 4월 6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부산에 마련된 임시 캠퍼스인 필승각에서 박물관을 다시 열어 문화재를 보호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으며, 유엔군과 외교 사절단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지금의 본관에 다시 진열실을 마련하여 교수들과 사회 유지들의 수집품을 기증받아 소장품을 더욱 풍부히 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있는 이 건물은 이화여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물 2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조선백자> 전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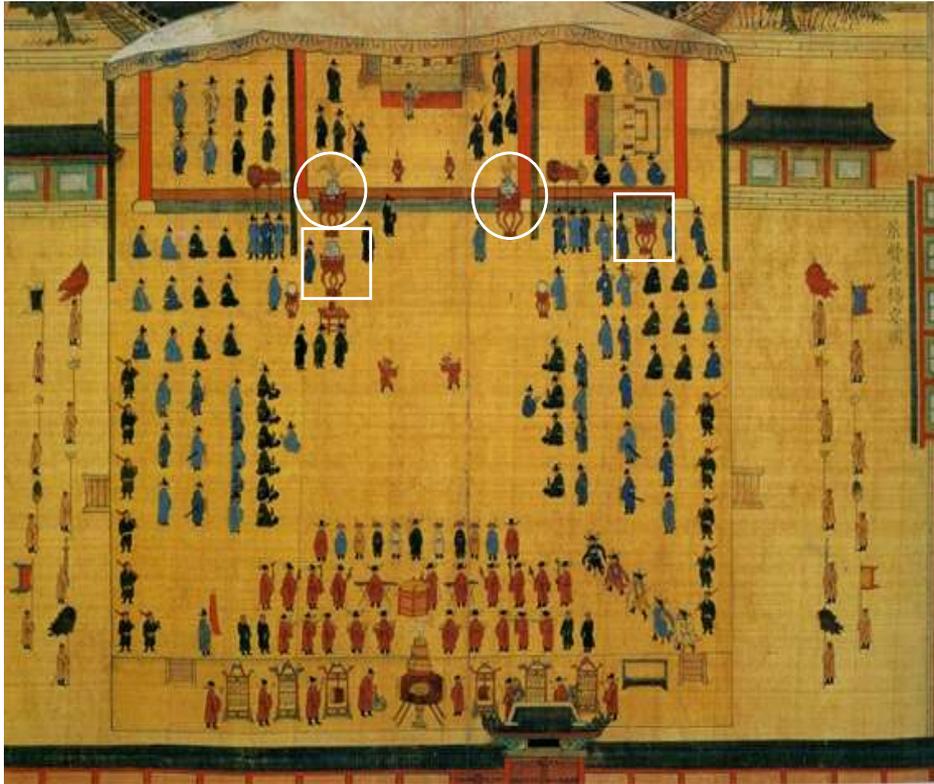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개관 80주년을 맞이하여 소장품 특별전 <조선백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해 온 조선백자 중 600여 점의 도자를 1, 2층 전관에 걸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백자의 전반적인 흐름과 다양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 우선 1층에는 왕실 의례용 기물과 명문 백자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조선왕실과 백자”, 조선인들의 출생과 죽음을 도자기로 살펴보는 자리인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 그리고 조선시대 문인들의 가치관과 미감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리인 “문인문화의 유행”,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제작된 백자가 전시되어 있는 “지방백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장수와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길상문이 시문된 백자들을 전시한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와 국보 107호 <백자철화 포도문호>가 단독으로 전시되어 있는 감상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백자>전을 통해 500여 년간 조선이 추구했던 왕조의 이념과 상층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애호되고 실용되었던 백자의 풍부한 조형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 구름 속을 힘차게 날아다니며 여의주를 잡기 위해 발을 뻗고 있는 용의 모습을 표현한 문양을 '운룡문(雲龍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인데, 이 운룡문이 그려진 향아리는 조선시대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운룡문호가 몇 번 등장하는지 찾아보고 그림 속 상황을 통해 그 쓰임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 4번, 왕실 행사에서 꽃을 꽂거나(동그라미) 술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였다(네모).



《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

조선 1720년, 비단에 채색, 보물 제638호, 43.0 X 66.5cm

● 미술 Tip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특별한 행사에 용 그림이 그려진 백자향아리를 사용했습니다. 백자 운룡문호의 용도는 조선시대의 행사를 기록한 그림을 통해, 꽃을 꽂아 장식하거나 술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종의 환갑연을 그린 《기사계첩》 중 경현당에서의 저녁 잔치를 그린 그림을 보면, 왕의 앞쪽에 놓인 백자향아리에 꽃을 꽂아 장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탁자 위에 놓은 같은 크기의 백자 운룡문호에는 술을 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2] 도자기가 제작된 시기나 용도 등은 굽 안바닥이나 주변부에 적힌 명문을 통해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굽 바닥에 쓰여진 '대(大)'자 명문은 대전(大殿)을, '대진(大進)'역시 대전에 진상함을, '별진(別進)'은 별번품(특별히 구운 도자기)을 표기한 것으로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문장으로 적힌 경우도 있는데, 가령 '신미제슈합고간칠득(辛未齊壽閣庫間七竹)'이란 명문은 경복궁내의 제수각(齊壽閣, 고종 4년(1867) 11월 중건) 고간에서 신미년(1871)에 사용한 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죽'은 10개를 표시하는 단위이므로 접시 70개가 납품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슈강재고간대등쇼이십득(戊申 壽康齊庫間 大中小 二十竹)'이라고 적힌 명문은 언제, 어디서, 몇 개의 그릇이 소용되었음을 의미할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정답) 무신년(1848) 수강재 곳간에서 대, 중, 소 200개

	<p><백자청화 복자문 접시> 조선 19세기, H. 3.2, 3.6cm, D. 13.7, 14.7cm</p> <p>'무신슈강재고간대등쇼이십득(戊申壽康齊庫間大中小二十竹)'의 명문을 굽 주위에 뽀족한 정으로 쏘아 새겨 넣었다. '일죽(一竹)'은 10개를 표시하는 단위이므로 같은 접시 200개가 납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戊申)이라는 간지로 사용연대를 1848년 또는 1908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p>
--	---

● 미술 Tip

명문백자는 간지, 소비처, 목적 등 제작과 관련된 정보가 새겨진 백자로, 이를 통해 유물의 연대와 제작배경,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물입니다. '대(大)'와 같이 한 글자를 굽바닥에 시문하는 형식은 정조년간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제사용 그릇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후 왕실의 물품 관리 전반에 확대·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점각명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를 왕실용으로 들여오면서, 간지나 소비처, 목적, 수량, 크기 등의 제작사항을 적어넣은 명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슈강재고간대등쇼이십득'라는 명문을 통해 무신년에 창덕궁 수강재에서 사용하기 위해 큰 접시, 중간 접시, 작은 접시를 200개 납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강재라는 명문이 있는 자기는 식기류인 발과 접시가 주종을 이루며, 자기의 기벽이 두껍고 유색이 담청빛으로 19세기에 제작된 자기의 특징과 일치하여 1848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굽 안쪽을 깊게 깎는 기법 또한 분원리 자기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문제 3]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백자를 일상용으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 제사 용기로서도 사용하였고, 무덤에 들어가는 부장품인 명기와 묘지석 또한 백자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묘지석은 무덤 주인의 태어나고 죽은 날과 행적 등이 적혀 있어 함께 발견된 부장품들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시실에 소개된 묘지석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속의 윤씨 묘지를 확인하고 빈칸을 채우면서 묘지의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만약 나의 묘지석을 미리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적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아래 비어있는 묘지석에 한 번 써봅시다.

정답) 1481년(출생), 1501년(혼인), 후궁, 중종반정(1506), 양녀, 1568년(사망)



백자청화 속의윤씨 묘지(白磁靑畫淑儀尹氏墓誌)

조선 1568년, 24.5x18.5cm, T. 1cm

연산군 후궁 속의윤씨(1481-1568)의 묘지로서 3매로 되었고, 후면에는 순서를 따라 청화로 '第一張', '第二張', '第三張終'이라고 쓰여 있다. 윤씨는 1481년에 출생하였고 1501년(연산군 7년) 연산군의 후궁으로 들어가 속의가 되었는데, 중종반정(1506) 후 돌아갈 곳이 없어 조카인 윤씨를 양녀로 삼아 후사를 맡겼다고 적혀있다. 향년 63세, 1568년에 사망하였다.

● 미술 Tip

조선은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추구한 국가로서 예의 실천과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지는 국가 행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의례에 사용하기 위한 백자를 필수로 제작하였습니다. 왕실을 비롯한 일부 지배계층에서는 명기와 묘지를 만들어 무덤에 함께 부장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이를 세트로 구성하여 매장하는 관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명기는 주로 왕실을 비롯한 일부 지배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인물상이나 그릇 등 여러 가지 생활용기들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명기와 함께 묘지(墓誌)도 부장하였는데, 묘지는 묘주(墓主)의 생몰 연월일과 행적, 그 무덤에 대하여 적은 기록으로 묘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묻힌 이를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제 4] 백자는 조선 왕실에서뿐 아니라 성리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조선사회를 이끌어간 사대부들에게도 매우 사랑받았던 도자기였습니다. 현존하는 백자들 중에는 당시 문인들의 기호와 삶을 반영하는 문양들이 시문된 예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래 그림들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설명을 읽어보고 맞는 문양과 연결시켜보세요.

정답) 1-B, 2-D, 3-C, 4-A



<백자청화 산수문 시명 팔각 병>, 조선 18세기
 꽃모양의 창(능화창) 안에 장한귀강동(張翰歸江東)과 같은 산수문을 그려 넣고 그 사이에 '취리건곤(醉理乾坤)', '호중일월(壺中日月)'과 같은 술과 관련된 문장을 적어 넣은 각병입니다. 각병이란 병의 겉면을 각이 지게 깎아낸 형태의 병을 말합니다. 술과 관련된 문장이 장식된 병은 당시 술을 매개로 이루어지던 선비들의 모임이나 일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취리건곤(醉理乾坤): '취한 속내에 천지가 있다'는 뜻으로 크게 취한 상태를 의미.
 ※ 호중일월(壺中日月): '화려한 옥당에서 좋은 술과 안주를 실컷 마시고 나왔다'는 후한(後漢)의 고사에서 나온 말.



<백자청화 매조죽문 호>, 조선 16세기
 조선에서는 세한삼우라고 불리는 소나무·대나무·매화 소재를 다양하게 결합하여 청화백자에 그렸습니다. 이 항아리는 몸체에 두 줄기의 매화 가지와 가느다란 대나무가지를 배경으로 네 마리의 새가 다양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자청화 산수문 편병>, 조선 18세기 후반-19세기
 소상팔경은 중국의 동정호의 여덟 경치를 그린 그림으로, 조선후기 회화 및 도자의 문양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이 여덟 경치는 사계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각각 초봄-늦봄, 초여름-늦여름, 초가을-늦가을, 초겨울-늦겨울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동정추월은 이 중 늦가을에 해당하며, 둥글게 뜬 넉넉한 가을 보름달이 특징입니다.

● 미술 Tip

조선시대에는 학자이자 관료인 사대부들이 사회를 주도하였으며, 백자에도 이들의 가치관과 미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사대부의 이념적 바탕이었던 성리학의 가치에 따른 그림과 글 등이 백자의 문양으로 그려졌으며, 특히 매화·새·대나무(梅鳥竹)와 매화·대나무·난초·국화(梅竹蘭菊) 등의 문양이 그려진 백자가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팔경도'와 같은 당시 유행하던 중국의 뛰어난 경치들을 그린 산수화를 백자에 그려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골동품이나 글씨·그림 등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면서, 도자기를 감상과 수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 때는 기존에 유행하던 산수화는 물론, 골동품 자체를 문양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이 담긴 그릇과 꽃 등을 모아 그린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에는 선비를 상징하는 각종 문방구류와 당시 문인들이 감상용으로 선호한 중국 도자기 등이 그려졌습니다.

[문제 5] 십장생은 소나무, 구름, 산, 돌, 물, 해, 학 등으로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길상소재로, 고대로부터 회화, 조각, 공예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주 사용된 문양입니다.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실에는 이러한 십장생들을 장식소재로 한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칸에 해당하는 백자를 직접 살펴보고 이름을 적어보면서 어떠한 소재들이 십장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정답) 학(백자청화 운학문 접시), 사슴(백자청화 쌍록송문 호), 복숭아(백자 도형 연적), 거북이(백자청화·청채 구형 연적)



<백자청화쌍록송문호>, 조선 19세기

조선후기 십장생은 그림 뿐 아니라 도자기의 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도자기 위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10개 중 2-8개의 소재가 부분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소나무에 비해 학이나 사슴을 크게 표현하는 등 비례가 맞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백자도형연적>, 조선 19세기

복숭아무늬는 반도(蟠桃)를 상징하며 조선후기 도교 신앙의 확대에 따라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서쪽 곤륜산에 살고 있다는 여신 서왕모의 정원에 3천년마다 열린다는 반도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복숭아는 일상적인 그릇의 문양으로 자주 그려졌을 뿐 아니라 그 모양을 본따 연적, 잔, 투각 필통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숭아모양 연적은 청화, 철화, 진사 등 여러 물감을 이용하여 가지와 잎을 표현해 생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 미술 Tip

조선전기 백자를 장식할 때는 왕실 행사를 위한 특정 문양이나 문인들의 취향이 담긴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문양을 그릴 때는 푸른색의 청화나 갈색빛의 철화, 붉은 빛의 동화 안료 등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청화 안료는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졌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화원이 주로 작업했습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왕실이나 문인 외에 부를 축적한 중인들까지 청화백자를 구입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중국 북경에서 값싼 청화 안료가 수입되면서 일상 그릇에까지 청화가 시문되었으며, 이와 같은 자기 구매자의 증가와 청화 안료의 보편화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자기가 유행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는 장수나 복을 상징하는 무늬인 길상문이 크게 유행한 시대로, 다양한 길상문의 표현 방식은 당시의 민화에서 볼 수 있는 느낌과 상통하고 있으며, 신분을 초월하여 폭넓게 애용되었습니다.

[문제 6] 아래 사진은 도자기 굽 부문의 파편 조각들입니다. 굽에 작은 흠 덩어리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흠 빚음을 굽에 붙였을까요?

정답) 2. 2번, 여러 개를 포개어 구울 때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한 장치.



● 미술 Tip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워질 때 가마 바닥에 자기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굽받침이 사용됩니다. 굽받침으로는 모래나 흙물 또는 흙으로 빚어 만든 받침 등을 사용했으며, 흙으로 빚어 만든 받침은 자기가 완성된 후 살짝 두드려서 떨어뜨렸습니다.

오답노트

1. 자기를 사용할 때 바닥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굽받침은 제작과정에서 자기가 가마 바닥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워낸 후에 굽에 굽받침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두드려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 제작과정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자기들이다.

위 사진의 깨진 자기 조각들은 자기를 생산한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제작과정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자기들입니다. 그러나 돌맹이 형태의 흠 덩어리를 굽에 부착한 까닭은 제작과정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 문장은 질문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4. 굽의 디자인을 위해 특별히 부착한 것이다.

굽받침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작 과정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부착, 사용되었습니다.